

왕쉬예: 인식의 저편

WANG Shuye: *Beyond Perception*



왕쉬예, <시공나체 · 즉(165)>, 2023, 캔버스에 유채, 130.3x193.9cm

전 시 명: **왕쉬예: 인식의 저편**

전시기간: 2023년 9월 20일(수)-2023년 10월 28일(토)

전시장소: **학고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50)

학고재 오룸(OROOM)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총 19점 (회화 19점)

○ 담 당 신리사 lisashin@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 010-3105-0718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30920-20231028 왕쉬예_인식의 저편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9월 20일(수)부터 10월 28일(토)까지 학고재 본관에서 왕쉬예(王舒野, 男, 1963-) 개인전 《인식의 저편》을 개최한다. 왕쉬예는 중국 헤이룽장성 출신으로 1989년 중국 공예 미술학원(現 칭화미술학원)을 졸업했다. 1990년부터 일본에 정착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인정받고 있는 작가이다.

옛날 중국 미학에 무현(無絃)이라는 개념이 있다. 줄이 없는 거문고를 뜻한다.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 음악의 경지를 우리는 표현해낼 길이 없다. 줄이 있는 거문고는 아무리 잘 탄다고 하여도 귀를 만족시킬 뿐, 지극한 경지의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연명(陶淵明, 365-427)은 줄이 없는 거문고를 손이 아닌, 마음으로 타고 마음으로 희열을 맛본 것이다. 중국 회화미학에 무가회(無可繪)라는 개념이 있다. 그릴 수 없는 경지를 뜻한다.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이는 자연주의에 귀속될 뿐이고, 아무리 시적 정취를 불어넣어도 의경(意境)은 쉽사리 태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순자(荀子, c. 298B.C.-238B.C.)는 “군자는 학문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하지 않으면 족히 아름다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君子知夫不全不粹之不足以爲美也).”라고 말한 것이다. 그릴 수 없는 경지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중국 회화미학의 영원한 과제였다.

현대 중국회화는 사실주의와 표현주의로 양분되어 발전했다. 사실주의는 삶과 생명을 이야기했으며, 표현주의는 심상을 나타냈다. 중국의 동시대 회화는 형식주의 미학도 받아들인 바 의미 있는 형식(significant form)을 쉽게 없이 추구해왔다. 그런데 그 어떠한 영역에 귀속되지 않으면서 무가회의 회화에 도전해왔던 화가가 바로 왕쉬예이다.

왕쉬예의 회화는 사실주의도 아니고 표현주의도 아니다. 근본적이면서도 철학적 전제를 상정하여 사물(존재와 관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여다보다 그림으로 표상하는 철학적 회화이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 왕쉬예의 회화세계의 특성을 표현주의적 몽환주의(expressive illusionism)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왕쉬예는 근본적 철학의 전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며 알게 되는 모든 감각, 즉 오온(五蘊)이라 부르는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은 인식의 고유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재현능력이다. 왕쉬예는 사물의 본질을 그린다. 곧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사물의 본질이 자리하는 지점을 사유로써 그리려는 것이다. 이를 작가는 “사물에 즉(卽)한다.”라고 발언한다. 왕쉬예는 거의 모든 작품에 <시공간체 · 즉(時空裸體 · 卽)>이라는 제목을 수여한다. 시공간의 본질을 회화 세계로 드러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것은 무가회의 회화를 동시대적 회화언어로 추구해왔던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 회화는 삶과 정치의 의미를 드러내는 사실주의 계열의 회화와 모더니즘을 재구성한 리모더니즘 회화로 양분되고 있다. 중국 현대회화는 1950년대 출생의 냉소적 사실주의 회화 이후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왕쉬예의 철학적이고 사유적이면서 회화적 깊이를 추구하는 근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2. 전시 주제

왕쉬예의 첫 번째 한국 개인전 《인식의 저편(Beyond Perception)》

총 19점이 출품되는 이번 전시회는 매우 특별한 풍경화가 주류를 이룬다. 왕쉬예는 <시공간체 · 즉(視空間裸體 · 卽)>이라는 제목의 연작으로 회화에서의 철학적 품격을 추구해왔다. 왕쉬예에 의하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감각은 절대적 감각이 아니라, 인간적 감각이라는 것이다. 꿀벌, 나방, 박쥐, 돌고래가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그중 사물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시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정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인간적 시각이다. 왕쉬예는 본질적 시각, 즉 신성한 시각(divine vision)을 시각적 사유로 추정하여 사물과 풍경을 바라보고자 한다. 즉, 우리의 인식에 선행하는 존재를 캔버스에 담아내고자 한다.

왕쉬예는 숲 · 나무 · 동굴 · 노변 · 실내공간 · 빌딩 · 도심 등 4차원 시공간의 원초적 모습을 추상화한다.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왕쉬예는 이를 가리켜 "시공간의 나체와 즉하다(직접 마주하다)"라고 표현한다. 작가는 대부분 사물을 물결 모양으로 그린다. 물결 속에 모든 사물은 섞이게 되고, 섞이는 가운데 하나가 된다. 사물(현상과 관계)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시각각 변화한다.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지속되며, 일시적으로 존재하여 어디론가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을 작가는 여실히 드러낸다.

왕쉬예 작가는 최초로 갖게 되는 한국에서의 개인전에 즈음하여 경복궁의 전면, 압구정의 여러 모습, 조선의 민화 속 풍경, 학교재 전면을 대상으로 그린 이색적인 작품도 발표한다. 이우환(李禹煥, 1936-) 작가는 "왕쉬예의 작품은 엑스타시를 느끼게 합니다. 모든 것이 섞이며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화가들은 드러내려고 하는데, 왕쉬예는 화필로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면 보이겠지만 기쁨이죠."라고 평가한다.

3. 작품 소개

왕쉬예(WANG Shuye, b. 1963) 대표작



〈시공나체 · 즉(165)〉

2023

캔버스에 유채

130.3x193.9cm

<시공나체 · 즉(165) A Space-Time Nude : Identical (165)>이라는 작품이다. 불빛으로 찬란한 도심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이다. 불빛의 에너지는 사방으로 강렬히 퍼지며, 그 에너지는 뜨겁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왕쉬예의 전매특허인 물결모양은 도심의 빌딩과 건물 표현에 집중되며, 이와 달리 하늘과 땅을 이루는 배경은 물결모양이 아니라 문지른 블러링(blurring) 기법으로 처리하여 영구의 의미가 드러난다. 왕쉬예는 만물유전(萬物流轉)의 진리 앞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물을 흐르는 물결로 표현했다.



〈압구정의 시공나체 · 즉(172)〉

2023

캔버스에 유채

181.8x227.3cm

<압구정의 시공나체 · 즉(172) A Space-Time Nude : Identical in Apgujeong (172)>는 제목에서 시사하듯, 작가가 압구정동을 그린 것이다. 1층에 아치 형태의 창이 있고 파사드가 웅장하게 돌출한 것으로 보아 갤러리아 백화점을 그린 듯하다. 건물 내부 불빛은 산란하여 밖의 어둠을 깨우면서 칙칙을 푸른 빛으로 물들인다. 붓질과 표현은 최대한 절제되었으며 블러링 기법을 통하여 사물은 공기와 섞이면서 녹아들고 있다. 그러나 비단 이 작품은 압구정의 화려한 활력과 멋스러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밖에 없다." 더구나 무한한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 이를 노자(老子)는 "대상무형(大象無形)"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큰 모습에는 형체가 없다. 여기서 큰 모습이란 생주이멸(生住異滅)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이 멋진 풍경도 그 법칙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복궁의 시공나체 · 즉(179)〉

2023

마지에 먹

178x234cm

<경복궁의 시공나체 · 즉(179) A Space-Time Nude : Identical in Gyeongbokgung Palace (179)>라는 제목을 지닌 기상(奇想)의 풍경화이다. 경복궁 풍경인데, 특이하게도 삼베로 만든 마지(麻紙)에 먹[墨]으로 그렸다. 왕쉬예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하던 전통적인 점묘법을 넘어서 물결무늬 터치를 개발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그림은 물결을 네거티브로 놔두고 물결무늬 주위를 포지티브로 채우면서 아주 독특한 몽환성을 드러내고 있다. 경복궁의 정면인 광화문의 형상을 네거티브 물결무늬로 최소화하여 그렸다. 왕쉬예는 우리에게 오컴의 면도날(Ockham's Razor)이 뜻하는 바의 검약의 원리(lex parsimoniae)가 무엇인지 여실히 느끼게 해준다. 이 작품으로 왕쉬예는 최소한의 붓질로 시각적 쾌감을 선사할 수 있는 동아시아 회화의 진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 작가 소개

왕쉬예는 1963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태어나 현재 일본 가마쿠라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도쿄갤러리+BTAP (도쿄, 일본 & 베이징, 중국), 이케다 20세기 미술관 (이토, 일본), 아플리에 스텔라 (도쿄, 일본)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의금상경(衣錦尙綱)》(2023, 학고재, 서울), 《분산과 집합: 글로벌 중국 작가 예술전》(2020, 허상닝 미술관, 선전, 중국), 《상외지상(象外之象): 신몽룡주의전》(2020, 후저우 미술관, 후저우, 중국), 《마음의 빛: 지닝시미술관 당대명가 초청전》(2019, 지닝시 미술관, 지닝, 중국), 《자유의 척도: 유럽으로 나아가는 중국당대수묵》(2018, 카사 데이 카라레시, 트레비소, 이탈리아), 《풍영초(風詠抄): 다카시마야 미술부 창설 110주년 기념전》(2018,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등이 있다.

5. 전시 평론 및 서문

왕시야 형의 그림에 부쳐

이우환

도쿄에서 체감온도가 45도를 넘는 날이 계속되어, 몸마저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두 문명이 자초한 재난이고 보면 드디어 아무것이던 다 붕괴의 증조를 띠게 되나 봐요.

문득 며칠 전 왕형의 화실에서 본 제작 중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풍경이 용해되어 모든 형태가 흐려지면서 어른어른 타오르고 있더군요. 몽롱한 광경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위 때문이 아니라, 원래 만물은 망막한 유기적인 세계라는 우주관에 의한 것이겠지요.

근대사회의 대상 중심주의를 타파하고,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을 꿰뚫어보려는 원대한 철리가 넘어다 보입니다.

수년 전까지는 모노톤으로 점묘가 주였는데 근작에서는 혼색에다 아메바(ameba) 상의 움틀 거리는 짧은 선묘가 특징이군요. 정영 손 맵시에 의한 신체감각이 훌륭히 발휘되어 화면이 과히 생생해졌습니다. 또한 색의 중층화에서 시각적으로 신선함과 중후함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왕형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거나 일그러지면서 멀어져가는듯합니다. 그림을 본다는 것은 때로 현실을 되새기는 일이기도 하지요.

왕형, 우리들은 한 화가로서 이 더운 여름에 문명에 맞서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두운 앞날을 염려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염없는 그림을 바라 매진합시다.

2023. 8. 15.

이우환

영원의 회화

이진명 | 미술비평 · 철학박사

왕쉬예(王舒野, 1963-)는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 태어났다. 1990년 일본에 도착하여 2001년에 개인전을 개최하기까지 10년 동안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무한한 흥취와 상상이 용솨음친다. 청말민초 최고의 천재였던 왕귀웨이(王國維, 1877-1927)는 「굴원문학의 정신(屈子文學之精神)」에서 북방의 문학은 왕당파의 문학이며, 요 · 순 · 우 · 탕 · 문무 · 주공 · 공자의 문학이며, 『시경(詩經)』의 문학이라고 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각함에 사특함이 없다(思無邪).”는 것이다. 반면에 남방의 문학은 소수파의 문학이며, 노자 · 장자의 문학이며, 『초사(楚辭)』의 문학이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 세상이 혼탁하지만 나만이 홀로 맑고 깨끗하다(舉世皆濁, 我獨清).”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취해있지만, 나 홀로 깨어있다(衆人皆醉, 我獨醒).”라는 문장과 같은 표현이다.¹

왕쉬예는 조국에서 촉망받던 삶을 뒤로 한 채 일본에 가서 무려 10년을 방랑했으며, 이 시기에 성찰을 거듭하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과의 서막을 발견하게 된다. 발견(發見)은 발명(發明)과 다르다. 발명은 사람의 의지로 하나의 작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발견은 큰 세계(우주)에 기존하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학은 발명일까 발견일까? 놀랍게도 현대 수학자들은 발견이라고 한다. 소름 돋는 이야기이다. 우주에 이미 수학의 세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패턴과 확률, 통계가 기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은 발명일까 발견일까? 나는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1954-)의 <승천(Ascension)>이나 <타락(Descension)>을 보면 알 수 있다. 바넷 뉴먼(Barnette Newman, 1905-1970)이 그린 흑백 회화 <십자가의 12차례 정지(The Stations of the Cross)>에서 느껴지는 숭고는 발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왕쉬예의 회화 세계 역시 발견의 세계이다. 발견은 누군가 내 이불을 걷어낸다는 뜻이다. 나의 의식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얻어진 계기이다. 편안하고 포근했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는 공포의 순간이 도래한다. 진리는 그러한 것이다. 발견은 따라서 망각이나 은폐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lethe'에 부정접두사 'A'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 'Aletheia'와 같다. 이는 깨어있음을 뜻하기도 하고 진리를 뜻하기도 한다. 발견은 이불을 걷어 올리는 것이고, 따라서 깨어있음이다. 포근함에서 깨어있음으로 가는 길은 고통스럽다. 이것이 진리이다.

왕쉬예 작가는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관념의 산물에 불과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일에서 진리의 화두와 마주했다. 그것은 서구 철학사에서 여전히 의제의 중심에 있으며 여전히 논쟁 중이다. 전자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사실주의자(realist)라고 부르며,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을 일컬어

¹ 王國維, 『王國維文學美學論著集』(上海: 上海三聯書店, 2018)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시 [제공 학고재] 표기 부탁드립니다.

관념주의자(idealist)라고 부른다. 왕쉬에는 후자의 전제에서 전자를 연역해가는 기상(奇想, conceit)을 발휘했다. 세계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향취를 맡으며, 피부의 감촉을 얻는 모든 감각, 즉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오온(五蘊)이 연출해낸, 존재와 관계의 총합이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꿀벌이 보는 세계나 나방, 박쥐, 돌고래가 보는 세계와 극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인간적 시각으로 보는 세계(human vision)이지 본연의 세계(divine vision)가 아니다. 우리는 그 본연의 세계까지 도달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것을 상정하여 추정해볼 수 있다. 왕쉬예가 그리는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왕쉬에는 마치 본연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리켜 '시공간의 적나라한 본연(A Space Time Nude Identical)'이라는 용어로 표명했다. 직역하면 '시공 나체·즉(卽)'이라는 뜻이다. 적나라한 본연의 시공과 즉(卽)한다. 대면한다는 뜻이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 시간이 흐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착각인지에 관한 논의는 둘째 치고, 왕쉬에는 시공간을 하나로 인식한다. 시몬 베이유(Simon Weil, 1909-1943)는 "시간은 영원의 이미지이다. 동시에 시간은 영원의 대용품이기도 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² 시간은 이미지에 불과하다. 영원을 느끼기 위해서 발명한 대용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동시에 『주역(周易)』의 「계사(繫辭)」에서 "이러한 까닭으로 상을 본받음에 천지보다 큰 것이 없고, 변하여 통하는 것으로 사시보다 큰 것이 없고, 상을 매달아 밝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와 달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³

시몬 베이유는 관념주의를 대표한다. 「계사」의 저자는 사실주의자이다. 왕쉬예 작가는 이 둘 사이의 어느 지점 즈음에 진리의 표상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가의 필선은 대부분 물결모양이다. 그것은 시냇물을 떠올리며 아지랑이(野馬)를 연상시킨다. 왕쉬예의 회화는 영원의 세계를 표상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생멸(生滅)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지시한다. 따라서 팔대산인(八大山人) 주탑(朱耷, 1626-1705)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날아가는 새가 외로운 나뭇가지에 깃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듯이, 뜻있는 사람은 영원을 추구하지만, 결국 현실의 질곡에 매일 수밖에 없다.⁴ 『초사(楚辭)』를 좋아했다는 남방의 사내 팔대산인 주탑은 마음이 어려서 현실을 슬퍼했다. 그러나 『시경』의 「국풍(國風)」편에 실려 있는 「북풍(北風)」이라는 시의 화자는 왕쉬예 작가처럼 남성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풍격의 시어를 우리에게 내뿜듯이 말한다.

북풍은 쌀쌀하고 눈이 펄펄 내린다.

점잖고 나를 좋아하는 이와 손잡고 함께 떠나 버릴까?

어이 우물쭈물하라! 빨리 떠나야지.⁵

² Simone Weil, *Gravity and Grace* (London: Routledge, 1952), 19.

³ 『周易』「繫辭」: "是故, 法象莫大乎天地, 變通莫大乎四時, 縣象著明莫大乎日月."

⁴ 八大山人: "人生於天地間, 若飛鳥栖孤枝." 朱良志, 「八大山人·石濤의 藝術境界」, 『紫禁城』第7號(2017), 58쪽에서 재인용.

⁵ 『詩經·國風』「北風」: "北風其涼, 雨雪其雱. 惠而好我, 攜手同行. 其虛其邪, 既亟且且."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시 [제공 학교재] 표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현실의 질곡을 슬퍼하는 팔대의 문장보다 「북풍」에 나타난 시인의 목소리를 더 사랑한다. 현실의 질곡 즈음은 아랑곳을 않으려는 무관심한 건강함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왕취예의 그림에서 시인과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된다. 또 한 사람 북방의 남자가 있다. 칭기즈칸(成吉思汗, 1162-1227)을 옆에서 모셨다는 거란인 야율초재(耶律楚材, 1190-1244)이다. 남들은 왕취예의 작품이 몽환적이고 섬세하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상(原象, urbild)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풍격이 강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왕취예의 그림은 몽환적이고 섬세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속에는 강인하고 건강하되 낙천적인 미소가 총색되어 있다. 그리고 야율초재는 꿈속에서 본 풍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나는 호수를 사랑하고 산을 좋아한다. 샘물은 솟아나 띠로 지은 집을 에워 흐르니, 도인은 한가로이 샘물을 만끽한다. 그것은 반 푼짜리 돈도 필요치 않는 지상의 즐거움이다.⁶

따라서 왕취예의 그림은 철학적 성찰에 동참하게 하고, 유한한 인생을 감내하게 하는 문학적 흥취가 넘쳐난다. 미술사적 가치는 물론 높다. 사유도 사유이거니와 형식 사유에서도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우미(優美)를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⁶ 耶律楚材, 『湛然居士文集』卷7 「夢中偶得」: “我愛湖山好, 茆齋繞澗泉. 道人閑受用, 不使半文錢.”

6. 작가 노트

인식의 저편

분별적으로 인식하는 시선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감지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실 세계를 보는 기본 방식이다. 인류 문명의 발전, 특히 전대미문의 이해(利害)를 지닌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되돌아보면 인간은 세계를 대상화된 사물처럼 인식해 왔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정보화되어 가고 인간 중심적으로 형상화된 인식적 지각에 휩싸여 있다.

인식적 지각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나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점점 더 편파적이고 세상을 대상으로 지각하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항상 인간의 속성을 맴돌아 인간중심적 관점을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 '인식의 저편'에 닿지 못해 세상 본연의 자유성·신비성·전체성·평등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시각 예술 탐구는 항상 하나의 주제를 둘러싸고 있다. 일상적인 인식적 지각으로 가려진, 인식을 넘어선 지각적 차원을 열어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나의 실험적 회화는 인식적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인식 이전의 세계'를 묘사하고, 현실 세계의 모습을 '순수한 시공간의 개방 상태'로 복원함으로써, 인식을 넘어선 지각적 차원과 그 속에서 체험한 세계 본연의 상태를 표현한다. 또한, 눈을 인식의 굴레에서 해방시켰기에 이러한 시공간의 상태에 대한 지각은 자연스럽게 무한한 생동감이 넘치는 자유를 지니게 된다. 나는 때때로 같은 광경을 완전히 상반되게 표현하기도 한다.

나의 예술 창작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지각적 비판과 보완적 탐구는 일상생활에서의 나 스스로를 겨냥할 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과 현대인, 그리고 기존의 예술 영역을 겨냥한다. 이러한 탐구가 현대인의 지각에 균형 잡힌 보완적 역할을 하고, 인식의 저편에 자리한 시각예술의 세계를 열어 주길 기대한다.

2023년 8월 18일

왕쉬예

7. 작가 약력

왕쉬예

1963 중국 헤이룽장성 출생
일본 가마쿠라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1989 베이징 중앙공예미술학원 졸업(현 칭화미술대학)

개인전

2023 인식의 저편, 학고재, 서울

인식 이전의 절대적 시각 차원을 향하여, 도쿄갤러리+BTAP, 도쿄, 일본

2021 비인식적 시각의 순간,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2019 미시유물, 미시유봉(未始有物, 未始有封),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2017 왕쉬예의 회화와 서예,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요코하마;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2016 제물(齊物) · 개관(改觀): "육안으로 보는 시공"의 차별 없는 시각,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2014 "육안으로 보는 시공"의 회화: 분별없는 마음과 눈을 실험하다,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2013 경계 없는 세상: 반조형의 시각,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오사카;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교토;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요코하마, 일본

2012 왕쉬예의 서예와 드로잉, 갤러리 유메 마츠도, 가마쿠라, 일본

2011 육안의 데이터, 아뜰리에 스텝키, 도쿄, 일본

2010 육안으로 보는 시공을 실험하다 2010, 도쿄갤러리+BTAP, 도쿄, 일본

2009 긍정의 눈빛: 왕쉬예의 세계 - 중국과 일본에서의 30년과 현재, 이케다 20세기 미술관, 이토, 일본
육안으로 보는 시공: 현존하는 이론,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2008 육안으로 보는 시공,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2007 실험, 곧 탄생할 이 탄생지로, 아뜰리에 스텝키, 도쿄, 일본

2006 다층적 모호함, 고쿠라쿠테이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2005 우리는 과거에 무엇을 믿었는가? 우리는 현재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2004 식물의 요소, 아뜰리에 스텝키, 도쿄, 일본

2003 즉(卽),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2001 넓고 텅 빈, 고쿠라쿠테이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시 [제공 학고재] 표기 부탁드립니다.

1989 베이징의 사단(四壇), 베이징 중심 제2순환도로 전역, 베이징, 중국 (퍼포먼스)

주요 단체전

- 2023 의금상경(衣錦尙綱), 학고재, 서울
- 2022 오버레이드: 도쿄갤러리+BTAP(베이징) 20주년 기념전,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신몽룡주의전: 고금공존(古今同在),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 2020 분산과 집합: 글로벌 중국 작가 예술전, 허상닝 미술관, 선전, 중국
모두의 집: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미술작품전, 중화예술관, 상하이, 중국
평면과 입체: 공동의 향수,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교토, 일본;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오사카, 일본;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나고야, 일본
신신의주의: 제2회 중국당대예술 명가 초청전, 추이전관 미술관, 시안, 중국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도쿄갤러리+BTAP 70주년 특별전,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상외지상(象外之象): 신몽룡주의전, 후저우 미술관, 후저우, 중국
- 2019 현대미술의 실례,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지구 공격, 아이치현 미술관, 나고야, 일본
이미지와 대화, 이우환/왕슈예x두 다카이/류주더, 칭화대학교 미술학원 미술관, 베이징, 중국
계슈탈트와 응시: 신몽룡주의전,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마음의 빛: 지닝시미술관 당대명가 초청전, 지닝시 미술관, 지닝, 중국
타이허 798 · 10주년, 타이허 아트 갤러리, 베이징, 중국
수묵정신, 지닝시 미술관, 지닝, 중국
시간의 물: 수묵예술의 오라를 모으다, 다상예술공간, 타이중, 대만
- 2018 체용일원(体用一源): 미래지향적 수묵예술 — 2018 중국 당대 수묵 연감 3주년 특별전, 중국미술관, 베이징, 중국
풍영초(風詠抄): 다카시마야 미술부 창설 110주년 기념전,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오사카, 일본;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요코하마, 일본
자유의 척도: 유럽으로 나아가는 중국당대수묵, 카사 데이 카라레시, 트레비소, 이탈리아
제5회 신몽룡주의전, 칭화대학교 미술학원 미술관, 베이징, 중국
정신 공간의 응시: 중국 · 이탈리아 합동 전시, 카스텔 산텔모, 나폴리, 이탈리아
기억의 사슬, 링샹 미술관, 포산, 중국
- 2017 구름의 심처: 신몽룡주의 4인전,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수묵중국 · 서사중국: 홍콩반환20주년 예술전, 홍콩 컨벤션 센터, 홍콩
- 2016 신몽룡주의,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천하 · 왕래: 당대 수묵 문헌전(2001~2006), 레드토리 당대예술관, 광저우, 중국
- 2015 앵프라망스 풍경, 상하이 밍위안 당대미술관, 상하이, 중국

※ 전시 서문 및 작가의 글 인용시 각 저자의 저작권 명시, 이미지 사용시 [제공 학교재] 표기 부탁드립니다.

- 심 · 경II, 3812 당대 예술 프로젝트, 홍콩
- 신몽룡주의,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레드토리 당대예술관, 광저우, 중국
- 마이크로 살롱 2015, 도쿄갤러리+BTAP, 도쿄, 일본
- 2014 신몽룡주의,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 마이크로 살롱2014, 도쿄갤러리+BTAP, 도쿄, 일본
- 2013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3: 흔들리는 대지 –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아이치 아트센터, 나고야, 일본
- 신몽룡주의, 도쿄갤러리+BTAP, 베이징, 중국
- 팬텀, 신주쿠 다카시마야 아트 갤러리, 도쿄, 일본
- 아뜰리에 스텔라 25주년 기념전, 아뜰리에 스텔라, 도쿄, 일본
- 마이크로 살롱 2013, 도쿄갤러리+BTAP, 도쿄, 일본
- 2012 마이크로 살롱 2012, 도쿄갤러리+BTAP, 도쿄, 일본
- 2010 아트 프로그램 오우메 2010, 오우메 시립미술관, 도쿄, 일본
- 마이크로 살롱 60, 도쿄갤러리+BTAP, 도쿄, 일본
- 2009 제28회 손포 일본 재단 선발 장려전, 손포 일본 세이지 토고 미술관, 도쿄, 일본